■광주 동구청장

‘정치 1번지’ 벌써부터 후보경쟁 ‘후끈’

노희용 동구청장 / 손재홍 광주시의원 /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 / 오형근 성형외과원장 / 임 택 전 동구의원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희용(51) 청장의 재선 도전에 기존 ‘동구’ 터줏대감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 청장은 짧은 시간, 현장 밀착형 구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민심을 다져오면서 재선 의욕을 다지고 있다.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광주시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을 거친 노 청장은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노 청장의 재선 도전을 위협하는 후보군으로는 손재홍(53) 시의원과 양혜령(51) 전 시의원, 오형근(51) 성형외과 원장, 임택(50) 전 동구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원장은 노 청장과 지난해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으며, 양 전 시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노 청장과 본선에서 한차례 맞붙은 적이 있어 이들이 모두 출마할 경우 또 한 차례의 ‘리턴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 패배에 ‘와신상담’하며 지역구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지역공동체 백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봉사활동, 토론회, 강연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특히 동구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 광역의원 지방선거 및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게 강점이다.

동구에서 3선 시의원을 지낸 손 의원은 지난해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반발, 탈당한 뒤 안철수 지지단체인 광주전남 진심포럼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어 향후 신당 후보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오 원장은 민주당 내 활동 보폭을 넓히며, 당심과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택 전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위원장도 최근 구청장 출마 의지를 굳히고 조직 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서구청장

김종식 청장에 ‘젊은 피’ 도전장

김종식 서구청장 / 김보현 광주시의원 / 이춘문 광주시의원 / 임우진 전 광주시 부시장

김종식(65) 청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피’를 앞세운 무소속 김보현(48), 이춘문(54) 광주시의원들의 거센 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우진(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임 전 부시장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 내 경선은 행정가 출신인 김 청장과 임 전 부시장의 치열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청장과 임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서구을 지역위원장 선거에서 한 차례 맞붙은 경험이 있다. 지역위원장 선거에서는 임 전 부시장 승리했다. 그러나 임 전 부시장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무리없는 구정 추진을 바탕으로 재선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 맞서 이른바 ‘386세대’로 분류되는 이춘문, 김보현 광주시의원들이 도전장을 낼 채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재 무소속 상태다. 조영택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함께 탈당하는 ‘정치적 의리’를 지키며 여전히 무소속 시의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풀뿌리 지방자치 경험이 풍부한데다 합리적인 성격인 탓에 지역구 내 조직도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김 의원은 광양시장 비서실장과 염동연·조영택 전 국회의원의 국회 보좌관을 역임해 지방자치와 중앙정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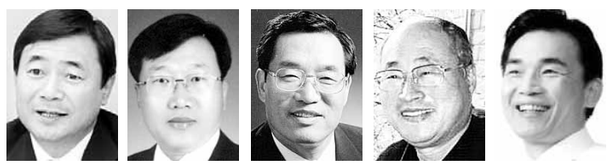
이들은 산악회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철수 신당’이 창당할 경우 신당에 합류하거나 연대 가능성도 높아 이번 서구청장 선거에서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남구청장

전·현직 대결에 시·구의원 가세


최영호 남구청장 / 김만곤 세무사 / 나종천 광주시의회 부의장 / 박용권 전 남구청장 / 이철원 변호사

최영호(48) 현 청장의 재선 도전 속에 전직 구청장과 전·현직 시의원 및 구의원의 도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40대 젊은 구청장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된 최 청장은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주민결정 행정 등의 ‘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며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예산 절감을 통한 신청사 이전으로 ‘백운동 시대’를 열고, 한국자치경영 창의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맞설 후보로는 3선 시의원인 나종천(70)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3선 남구의원을 지낸 김만곤(56) 세무사, 이철원(55) 변호사, 박용권(63) 전 남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김만곤 세무사는 일찌감치 구청장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지역 민심을 훑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장병완 특별보좌역을 맡기도 했던 김 세무사는 ‘실용과 생활행정의 모범이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내걸고 각종 지역행사 등에 얼굴을 내밀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나종천 부의장 또한 지방선거 때만 되면 항상 구청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고, 시의원 3선을 할 정도로 밑바닥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이철원 변호사와 박용권 전 남구청장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남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지역민들의 법률상담 등을 해오며 인지도를 높여왔고, 박용권 전 청 장도 꾸준히 지역민들에게 안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바닥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북구청장

민주 공천경쟁 속 송광운 3선 도전 변수

송광운 북구청장 / 문상필 광주시의원 / 송태종 전 광주시의원 / 조호권 광주시의회의장 / 진선기 광주시의원

북구청장 선거는 송광운(60) 현 청장의 3선 도전 여부가 가장 변수로 꼽히고 있고, 대부분의 후보가 민주당원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구의 경우 강기정(북구 갑), 임내현(북구 을) 2명의 국회의원 의중도 구청장 후보 선출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송광운 현 청장은 행정관료 출신인 만큼 무난하게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탄탄한 지지층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에서 3선 자치단체장이 어렵다는 점과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선 불출마’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맞설 후보로는 조호권(53) 광주시의회 의장과 재선의 진선기(49) 시의원, 초선의 문상필(47) 시의원, 송태종(51) 전 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호권 의장과 송태종 전 의원은 지역구가 북구을이며, 진선기·문상필 의원은 북구 갑이 지역구다. 이들은 바닥 민심을 훑으며 구청장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금융인 출신인 조 의장은 광주 6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지역민생 탐방과 민원인 면담 등을 의장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진 의원은 KTX 광주역 진입을 위한 1인 시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면서 조직 다지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우선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북구 미래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각종 토론회, 연구회 등을 활발하게 이끌며 구청장 도전을 준비중이다. 송 전 의원도 최근 북구 을 지역을 중심으로 보폭을 넓혀가며 바닥 다지기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광산구청장

현청장 재출마 유력 속 ‘텃밭민심’ 변수

민형배 광산구청장 / 서종진 전 광주시 국장 / 송경종 광주시의회 부의장 /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

민형배(53) 현 청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서종진(59) 광주시 전 교통건설국장과 송경종(43) 광주시의회 부의장, 송병태(75) 전 광산구청장, 유재신(53) 전 광주시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최근 안철수 의원 측의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기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도 ‘안철수 신당’ 변수가 상당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인 민 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노동·복지분야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민 청장은 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부문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다른 자치단체에 보다 앞선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맞서는 서 전 국장은 올해 광주시청을 퇴직하고 일찌감치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내무부와 행정안전부를 거쳐 지난 2009년 광산구 부구청장으로 고향에 내려왔다. 현재 광산미래포럼 이사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구청장 도전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의장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송 부의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산지역 최연소 최다 득표로 구의원에 당선된 기록을 갖고 있다.

3년 전 민주당 경선에서 민 청장에게 아깝게 고배를 마신 유재신 전 시의원도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광산구에서 재선 시의원을 지내면서 폭넓은 인맥과 원만한 품성으로 아직까지 상당한 조직이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도 구청장 도전 의지를 보이며 광산지역 각종 행사에 참석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시장

현역 없는 ‘무주공산’ 출사표 줄이어

권 욱 도의회 교육위원장 / 김삼열 전 목포항만청장 / 박홍률 전 국정원 지부장 / 배용태 전남도 부지사
이상열 변호사 /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 /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차기 목포시장은 정종득 현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무주공산’이 되면서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도의회 권욱(49) 교육위원장은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삼열(59) 전 목포항만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그는 관련 중앙부처와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박홍률(59) 전 국정원 충북도지부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34.5% 지지를 받았지만, 재선의 정종득 시장에게 패한 뒤 목포희망 21세기 포럼을 맡아 재기를 노리고 있다.

배용태(58)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부시장을 지냈고, 현역 공무원이란 장점을 활용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상열(61) 변호사는 17대 지역 국회의원을 지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최기동(63) 전 목포시의회 의장은 현역 3선 시의원으로 생활정치의 달인이다. 6대 전후반기 의장을 지낸 원도심 토박이로, 원도심 지역에서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영기(57) 전 서울경찰청장은 중요 국가기관 수장을 역임해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주요 전략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여수시장

현역 프리미엄 속 주철현 ‘다크호스’

김충석 여수시장 / 김동채 여수경실련대표 / 김영규 여수시의원 / 송대수 전 전남도의원 / 주철현 변호사

김충석(73) 현 여수시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후보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민선 3기에 이어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된 현 김충석 시장은 재임기간 여수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여수를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재선을 통해 여수를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 레저스포츠교육 문화수도’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다.

여수경영인협회 회장 출신인 김동채(55) 여수 경실련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단체 리더 활동과 기업경영의 경험을 행정과 결합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여수시의회 의장을 지낸 현역 4선 김영규(57) 시의원은 신도심과 구도심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송대수(57)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현역 3선 도의원으로, 소통과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기초의원 시절부터 다져온 탄탄한 지지층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전 대검 강력부장(검사장) 출신인 주철현(54) 변호사는 공직생활로 쌓은 풍부한 법조계 경험과 폭 넓은 인맥이 강점으로, ‘다크호스’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지역에 법률사무실을 열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합리적인 변화·혁신으로 여수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한영래(63) 재경 여수향우회 회장과 박정일 전 여수경영인협회 회장도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순천시장

조충훈 재선 가도 박광호 다시 도전

조충훈 순천시장 / 김대희 순천시의회의장 / 기도서 전남도의원 / 박광호 전 순천시의원 / 이창용 순천시의원

차기 순천시장 후보군은 조충훈(60) 순천시장을 비롯한 김대희(60) 순천시의회의장, 박광호(50) 전 시의회 의장, 기도서(49) 전남도의원, 이창용(62) 순천시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허석(50) 전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박동수(63) 전남도의원, 이수근(44) 통합진보당 순천지역위원장, 신택호(48) 변호사 등도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오는 10월까지 열리는 정원박람회의 목표 관람객 400만명 중 현재 300만 정도가 입장한 상태로,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한달 가량 남아있는 만큼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이뤄내면 재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박광호 전 의장은 2차례 시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만큼 조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어떻게 넘어설지 주목된다. 박 전 의장은 20년 지방의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도시발전의 리모델링을 힘차게 진행시킬 수 있는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김대희 순시의회 의장도 지역에서 풀뿌리 의정활동을 펼쳐 밑바닥 조직이 탄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순천시의원을 거친 기도서 전남도의원 등도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자부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기 도의원은 최근 당내에서도 입지를 넓혀가며, 당 경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하는 등 출마를 구체화하고 있다.

순천시청 총무국장 출신인 이창용 시의원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방자치 경험을 내세우며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주시장

임성훈 시장 등 4~5명 출마 거론

임성훈 나주시장 / 강인규 전 나주시의원 / 신정훈 전 나주시장 / 이기병 전남도의원 / 홍석태 전 전남도 국장

민주당의 세가 강했던 나주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약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안철수 신당 출현 여부가 내년 나주시장 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훈(54)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4~5명의 후보들이 내년 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 시장은 올해 나주 미래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며 재판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현직 프리미엄과 무죄 입증을 자신하며 재선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다. 특히 향후 미래 산단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화위복’을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재판 결과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강인규(57) 전 나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발품을 팔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부시장 출신 농부로 알려진 이광형(59) 전 나주 부시장도 각종 행사장 등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기병(56) 전남도의원도 출마 의지를 밝히고 활동을 시작했다. 재선의 도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갖고 안철수 의원 측과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태(63)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도 출마 의지를 굳히고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 전 국장은 개발 전략을 갖춘 행정관료 이미지를 앞세워 혁신도시 마무리와 나주시민 화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조직을 꾸려 이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정훈(49) 전 나주시장은 현재까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시장 출마를 위해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